

경북도-경북문화재단, 12개 지역에 문화예술 프로그램 제공

‘구석구석 문화배달’ 공모사업 선정 국비 10억 확보... 전국 시도 최고액 인문학 콘서트, 창작 연극 등 예정



코레일 김천(구미)역에서 구석구석 문화배달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경북도와 경북문화재단이 문화관광체육부의 ‘2025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 공모사업에 2년 연속 선정돼 국비 10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4억3000만원으로 다양한 문화 공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4일 경북도에 따르면 ‘구석구석 문화배달’은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과 혁신도시가 있는 전국을 대상으로 ‘문화가 있는 날’(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와 지역 특화 문화콘텐츠 창출을 위해 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공모사업에 선정돼 올해는 전국 시도 중 가장 많은 국비 10억원을 받게 됐다.

지난해 사업 추진 결과 경북문화재단은 우수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경북도는 올해의 사업을 ‘경북 온(On)마을 열차 12호’로 정하고 열차 한 칸마다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인 연극, 뮤지컬, 오페라, 마당극 등을 담아 12개 지역을 대상으로 문화배달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 사업은 ▲한글문화만물상(고령군, 청도군) ▲구석구석 공연배달극장 ‘소풍’(봉화군, 영양군) ▲구석구석 별을 위한 페스티벌(안동시) ▲어

화동동 공연봄날, 예술이 淸淸(영덕군, 울릉군) ▲원도심 아트 데이(영천시) ▲문화바람, 오예! 2.0(예천군) ▲예술보부상, 바지개 메고 울진을 누비다(울진군) ▲‘너를 이런 거 본 적 있나?’(의성군) ▲산소 카페 나들이 ‘청송 오감만족’ (청송군) 등이다.

고령·청도의 ‘한글문화만물상’은 고령 지산동 고분군 대가야 이야기와 청도읍성과 반시 등을 주제로 한글을

활용한 독창적인 인문학 콘서트를 제공한다.

봉화·영양의 ‘구석구석 공연배달극장 소풍’은 창작 연극으로 공생과 상생의 정신을 전해 인구소멸 지역의 공동체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안동 ‘구석구석 별을 위한 페스티벌’은 지역 예술가를 활용한 국악, 트롯, 마술, 마당극 공연 등을 제공한다.

영덕·울릉 ‘어화동동 공연 봄날, 예술이 淸淸’은 지역 공동체 안녕을 비는 덕담을 나누는 마당놀이와 체험 행사다.

이들 프로그램은 3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마지막 ‘문화가 있는 날’ 주간에 총 96회 운영되며 이 밖에도 다양한 볼거리, 즐길 거리가 제공된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올해도 많은 국비 확보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마련돼 수준 높은 공연으로 경북 곳곳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북=김상복 기자 ksb8100@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무안군 지역금융 활성화 기여 인정받아

전남 무안군은 2024년도 지역금융 활성화 유공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표창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역금융 활성화 부문에 기여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 결과, 무안군이 무안사랑상품권 활성화 시책 등을 통해 지역금융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상을 받게 되었다.

무안군은 지난해 ▲무안사랑상품권 발행·운영 ▲무안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관광지 입장료 화폐드림 추진 등 무안사랑상품권을 활용한 다양한 정책으로 지역상권 경쟁력 강화와 소비 촉진에 적극 나섰다.

/무안(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영양군

공공 겨울축제, 인파로 ‘복적’

영양군(군수 오도창) 영양읍 현리 일원에서 영양군과 영양군 체육회 공동 주최로 19일까지 열리는 ‘제2회 영양 공공 겨울축제’장은 추운 날씨에도 인파로 복적이고 있다.

현리 빙상장은 매일 25cm 이상의 얼음 두께를 유지해 안전하게 ‘공공 겨울축제’를 진행할 수 있었다.

작년 ‘제1회 영양 공공 겨울축제’의 성공적인 개최 이후 영양군에서는 올해 2회 축제를 개최하며 기존 3m였던 눈썰매장의 높이를 6m로 높였고, 빙상장의 규모를 넓히고, 다양한 먹을거리를 추가하는 등의 노력으로 작년 1회 축제를 가볍게 뛰어넘는 호평을 받고 있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산청군

농업과학기술보급에 69억 투입

산청군이 농업과학기술보급 시범사업에 69억원을 투입한다.

산청군에 따르면 농촌진흥청과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등이 개발한 신기술을 지역 농업인들에게 확대·보급하기 위해 농업과학기술 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에서는 6개 분야 46개 사업을 선정해 69억원을 투입한다.

산청군은 이번 사업이 농가 신기술 보급과 함께 노동력 및 농업 경영비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산청(경남)=이도식 기자

사천시

사천방문의 해, 관광객 맞이 분주

경남 사천시가 2025년 사천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객 맞이 준비에 바차를 하고 있다.

14일 사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0월 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이색적인 컨셉의 BI ‘2025 사천방문의 해 사천에 또와’를 최근에 개발했다.

또한 사천방문의 해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천시의 진입관문인 사천IC 초입 부근 공원에 관광 캐리커더포이를 활용한 조형물을 설치했다.

/사천(경남)=이도식 기자

해수부-해진공, 1兆 규모 펀드 조성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망 구축 본격화

국내 항만에 연료 저장 시설 구축 벙커링 전용 선박 신조 금융 지원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진흥공사(이하 해진공)는 14일 오후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친환경 선박 연료 인프라 펀드’ 출범 및 1호 펀드 투자 서명식을 개최했다.

해수부와 해진공은 2030년까지 총 1조 원 규모의 인프라 펀드를 조성해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망 구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인프라 펀드는 국내 항만에 친환경 연료 저장 시설을 구축하고 벙커링 전용 선박을 신조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제공한다.

특히 2030년까지 약 6000억원을 투입해 ▲LNG ▲메탄올 ▲암모니아를 공급할 수 있는 항만 저장 시설을 조성하고, 약 4000억원을 투자해 LNG·암모니아 벙커링 전용 선박 4척을 신조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적 선박의 친환경 연료 수요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국내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의 원활한 연료 공급을 통해 우리 항만이 글로벌 허브 항만으로서 경쟁력을 지속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에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과 안병길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을 비롯해 ▲한국산업은행 ▲교보생명 ▲우리자산운용 ▲현대오일터미널 등 펀드 참여 관계자가 참석하며 1호 펀드 설립을 위한 ‘투자 기본 계약 체결 합의서’와 ‘대출 약정 체결 합의서’에 서명했다.

1호 프로젝트로 선정된 ‘울산 현대 액체 화물 터미널 증설 사업’은 총사업비 2400억원 규모로, 이 중 1300억원이 인프라 펀드를 통해 투자되며 이를 통해 국내외 선박의 메탄올 연료 수요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2호 프로젝트로 예정된 ‘여수 규모 LNG 허브 터미널 사업’을 통해 LNG 공급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후속 프로젝트를 발굴해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망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경주시, (주)미정 식품 제조공장 투자유치

총 200억 투입... 50명 일자리 창출

경주시는 지난 13일 시청에서 지역의 유명 식품제조업체인 (주)미정과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주낙영 경주시장, 정재현 (주)미정 대표이사, 정기율 회장, 고영달 경주시 경제산업국장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경주시와 (주)미정은 천북면 신당리 일대에 식품제조공장을 신설하는 데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이에 따라 (주)미정은 올해 말까지 1만 9154㎡ 부지에 조미식품(소스류), 떡류, 면류 등을 생산하는 첨단 식품 제조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다. 이번 투자협약으로 (주)미정은 총 200억 원이 투입해 50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경주시는 투자사업의 원활한 진행



주낙영 경주시장, 정재현(사진 우측) (주)미정 대표이사, 정기율(사진 중앙) 회장이 13일 경주시청 내 대외협력실에서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했다.

을 위해 공장 설립과 관련된 인허가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1963년 설립된 (주)미정은 면, 떡, 소스 등 다양한 식품을 제조하며 성장해 온 기업으로 뛰어난 연구개발 역량과 전문 생산 능력을 갖췄다.

/경주(경북)=최지용 기자 asdadx@

대구시, 中企 경영안정자금 1.2兆 지원

전환자금 신설, 골목상권 활성화 도모 오는 17일부터 각 지점서 신청 접수

대구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중소기업들을 위해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지역 중소기업(중견기업 포함)과 소상공인이 시중은행에서 저리로 운전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출금액과 우대 여부에 따라 대출이자 일부(1.0%~2.2%)를 1년간 시비로 보전하는 것이다.

융자지원 규모는 지난해와 같은 1조 2000억 원으로, 장기화된 내수 침체와 고금리·고환율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하여 자금을 상반기에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대구=김강석 기자 presskim@

포항시, 한 달간 숙박 할인 프로모션 진행

여가플랫폼 야놀자와 ‘맞손’

포항시는 설 명절 연휴 기간과 올 초 개통한 동해선 이용 포항방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국내 대표 여가플랫폼 야놀자와 손잡고 특별이벤트로 숙박 할인 프로모션을 한 달간 진행한다.

15일부터 여가플랫폼(야놀자) 어플에서 포항 숙박업소 3만 원 이상 상품을 예약하는 고객에게는 1만 원 할

인 쿠폰이, 5만 원 이상 상품을 예약하는 고객에게는 2만 원 할인 쿠폰이 제공된다.

쿠폰은 준비 수량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발급되며, 2월 15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이번 포항 관광 할인 이벤트는 국내 메이저 여행 커뮤니티 미디어인 ‘여행에 미치다’와도 협력해 홍보될 예정이다.

/포항(경북)=최지용 기자